

##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

### ○ 함안군연합회, 함안농업경영인 가족대회 개최

- 함안군연합회(회장 조만제), 제27회 함안군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를 9월 3일(수)에 개최. 이번 대회에는 차정섭 함안군수를 비롯해 함안군연합회 회원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음
-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함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장성군의 정찬균 부군수 및 농업경영인 40여 명이 함께해 영호남 교류와 대화합의 장을 만들었음

### ○ 남해군연합회,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

- 남해군연합회(회장 김인선), 9월 2일(화) 남해군문화체육센터에서 1천여명의 회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'제29회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'를 개최
- 개회식에서는 여동찬 회원을 비롯한 12명의 회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으며, 남해중학교 류재환 외 2명의 농업경영인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되었음.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배구, 2인3각, 제기차기, 윷놀이,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가족한마당 행사가 벌어져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했음

## 지방 농정 관련 소식

### ○ 경북 봉화군, 농업 상생발전 위한 '농정 대토론회' 개최

- 경북 봉화군은 9월 4일(목)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봉화군 농업 상생발전을 위한 '농정 대토론회'를 개최
- 이날 토론회에는 박노옥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, 도의원,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농정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을 펼쳤음
- 배동완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"농업인구 고령화,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과 농업인들이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"고 강조했음
- 박노옥 군수는 "2015년 쌀 관세화, 한중 FTA 사전협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창출 분야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겠다"고 밝혔음. 봉화군 농정 대토론회는 2012년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열린 것임

### ○ 충남 예산군, 맞춤형 농업발전계획 수립 착수

- 충남 예산군은 지역 내 자원과 특징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착수. 민선 6기 군정방침인 '가치있는 농업육성'을 위해 분야별·사업별로 수립해 오던 각종 계획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는 5개년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임

- 이번 계획을 통해 예산군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정에서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 참여와 책임을 강조한 '지역중심 및 공동체 주도'를 강조한 것으로 군은 본 계획 수립으로 지역중심의 농정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임. 이러한 계획들을 현실화하고자 예산군은 9월 4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했음
-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무원, 주민대표, 대학,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및 충남발전연구원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역단위 인적·물적 자원을 결합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정추진을 계획중
- 군은 추진기획단 구성을 시작으로 1차 회의를 통해 농정분야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10월 중에 2차 회의를 통해 분야별 기존사업 보완과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
- 이후 11월 경에 군의회 간담회와 최종보고회로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농림축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제출할 방침

### ○ 충주시,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농업안정기금 조성...2016년까지 총 100억원 조성을 추진

- 충주시가 충북지역 최초로 농업안정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약 84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음
- 기금은 농림축산물 값이 최저가 밑으로 떨어지면 최저가격과 출하가격 차액을 도와주는 '농림축산물값 안정'에 쓰임. 또 농업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대출금리 중 3%를 넘는 이자를 융자 후 3년까지 기금운영수익금으로 도울 방침임
-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기금목표액이 모아지는 201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. 지원대상은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를 충주시 관내 농협,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, 도매시장, 축협 등지로 출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임
- 가격안정지원기준이 되는 최저가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등을 바탕으로 올부터 고시됨. 사과는 1,000㎡ 이상 재배농가에 2만㎡까지, 고추와 복숭아는 1,000~1만㎡, 밤은 3만~5만㎡, 한우는 5마리 이상 출하농가에 연간 30마리까지 지원됨
- 이차차액 돕기 사업의 경우 농가는 시설자금 5천만원과 운영자금 3천만원,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5천만원 융자한도로 지원대상이 됨
- 한편 충주시는 지역농업인들이 경영자금의 대출이자부담과 값이 떨어진데 따른 불안 등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안정기금으로도 쓸 수 있게 올 4월 조례를 개정했음
- 충주시 관계자는 "농업안정기금을 앞으로 2년간 시 예산에서 10억원씩 내어 100억원을 만든 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울 것"이라고 설명함